

자연 가까이 사랑 가까이

2016 AUTUMN K eco VOL.26



격의 없는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공평하게 일하고 소통함으로써
공단이 보다 즐거운 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 여러분
한국환경공단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전병성입니다.
명실상부 최고의 환경전문기관인 이곳에서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우수한 인력의 전문가 집단으로
국가 환경정책과 산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핵심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누구보다 환경을 사랑하며
맡은 분야에 책임과 열정을 다하는 훌륭한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여 환경정책발전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를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약속 드립니다.

첫째, 혁신과 창의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나갈 것입니다.
둘째, 화합과 소통을 중시하는 '일할 맛 나는 조직'으로 혁신해나갈 것입니다.
셋째, 임직원의 청렴성과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논어의 옹야(雍也)편에서는
'지자 불여 호자자(知之者 不如 好之者)
호자 불여 락자자(好之者 不如 樂之者)'
라고 하였습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임기를 마칠 때까지 직원 여러분과 격의 없는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공평하게 일하고 소통함으로써, 공단이 보다 즐거운 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주요 연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2016~)
경북대학교 원격탐사연구소 교수(2012~2016)
제8대 기상청 청장(2009~2011)
대통령실 환경비서관(2008~2009)
환경부 환경전략실 실장(2008)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2006~2008)
국토해양부 수자원국 국장(2005~2006)



일할 맛 나는 환경공단을 위하여!

지난 8월 25일, 오후 1시. 전병성 신임 이사장님과 4인의 직원이 카페 아래에 마주 앉았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이사장님과의 만남에 많이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이야기가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편안한 얼굴로 각자 담아온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이번 대담은 경영진과 직원이 가진 이상과 현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밀착되어 각자의 마음속에 '더 좋은 공단'이라는 희망을 품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 현장을 함께 읽어보자.



[홍재록 사원\(자원순환지원처 환경품질검사팀\)](#) 환경공단에 부임하시고 처음 받으신 느낌은 어떠셨나요?

[전병성 이사장](#) 환경공단은 설립에 관여했던 적이 있고, 환경부 재직시절 공단과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공단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단인들에 대해 '부지런하다, 사명감있다, 스마트하다'고 느꼈었고, 부임 후에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인들은 특히나 더 열정적으로 국민들의 건강, 복지, 자연환경과 관련된 일을 스마트하고 부지런하게 처리하고 있더군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게 돼 영광이죠. 나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웃음)

[송민호 과장\(하수도지원처 물산업진흥팀\)](#) 오래 전부터 공단과 인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전병성 이사장](#) 환경관리공단과 한국자원재생공사 두 기관이 통합되기 전부터 인연이 있었으니 벌써 30여 년 됐네요. IMF가 발생하고 1998년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재직시절 공기업 산하 기관 구조조정 실무책임자였습니다. 당시 환경관리공단은 창립 10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조직이었고, 성장하고 있는 조직이었기에 구조조정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때부터 인연이 닿았죠.

[장순열 대리\(대기환경처 총량정책지원팀\)](#) 공단보다 큰 조직의 기관장님으로 계셨는데, 어떻게 직원들과 소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전병성 이사장](#)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70여 개의 산하 기관을 가진 곳입니다. 지방 직원들까지 엄청난 인원이었죠. 조직이 크다보니 직원들의 의사가 청장인 나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잘 반영해야만 좋은 조직이 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기상청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소통을 위해 두레박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켰습니다. 지방 기상대 회식, 본부 내 국별 회식, 지방 산하 기관 회식 등 직원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고, 인턴까지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누구든지 허심탄화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사와 보직을 성과위주로 보장했더니 저절로 소통이 잘 되고, 화합이 이루어져 직원들 간에 불만이 없어졌습니다. 그 때 '소통과 화합은 조직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죠.

[장순열 대리](#) 두레박을 공단에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전병성 이사장](#) 당시 기상청은 직장협의회도 없었고 노조도 없어서 이런 모임을 만들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노조가 있으니 노조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별도의 모임을 원한다면 만드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원한다면 만들고, 저도 좀 초대해주세요.

최라라 대리(자원순환혁신센터 T/F 순환자원거래지원팀) 여러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잊지 못할 에피소드나 특별한 기억이 있으세요?

전병성 이사장 에피소드는 엄청 많지요. 신개념의 제도를 환경부에 많이 도입한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의제21, 지속가능발전 실천 강령, EPR의 전신인 TRI, 자율환경협약제도 등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하는 신제도를 많이 도입했어요. 이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자연보전국장 재임 당시 국립공원 조정일을 담당했었는데 국립공원 구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은 제한을 풀어주길 원하기 때문에 조정을 진행할 때 민원이 엄청 많았고, 협박도 부지기수로 받았습시다. 그때마다 현장을 많이 방문했어요. 권위나 지위를 이용해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정부가 아닌 주민대표에게 결정권을 넘겨서 힘든 구역조정을 원활히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결정된 일을 법과 제도로 지원해주면 되지 않겠어요?



송민호 과장 취임사에서 소통, 다양성 존중, 일할 맛 나는 조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일할 맛 나는 조직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병성 이사장 일할 맛 나는 조직이라고 운동장에서 모여 물루랄라 노는 조직을 상상한 것은 아니죠?(웃음) 내 생각에 그런 조직이란 믿음이 있는 조직, 대화가 있는 조직,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통, 그리고 상호 간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역으로 신뢰가 있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소통,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과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겠죠. '이야기를 해보니 믿을만하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물론 말한 만큼의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마지막이 공평함인데, 무조건적인 공평과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인 공평을 의미합니다. 성과위주로 인사나 보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입사를 했는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개개인의 꿈도 펴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성공하는 조직이 될 수 없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환경공단을 일할 맛 나는 조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최라라 대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우실 텐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병성 이사장 역만큼을 준다해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환경부나 청와대 등에서 근무할 때에는 주말마다 등산을 다녔는데 기관장을 맡은 뒤로는 아침 운동을 시작했어요. 1시간 가량 휘트니스센터에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 시간은 짧지만 하루를 개운하게 시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른 취미활동도 함께 하면 좋은데 시간 내기가 쉽지 않네요.

최라라 대리 공단 내 동호회가 많이 있는데 가입하셔서 함께 해보시면 어떠세요?

전병성 이사장 마라톤, 테니스, 자전거, 등산 등 많은 동호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삼종철인경기 빼고는 자신있습시다만 가입해도 되겠습니까?(웃음)



홍세록 사원 최근 어떤 책을 읽고 계신지, 직원들에게 추천하고픈 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병성 이사장 기업 경영, 자기 계발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기업 경영서 중에서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라는 책을 많이 추천했고, 지금도 추천합니다. 위대한 기업(조직적이고 기술이 우수하며 매출 높은 기업)은 많지만 사랑받는 기업은 드물다는 내용입니다. 사랑받는 기업이란 직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 창의성을 발휘하며 조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알할 맛 나는 조직이 바로 그런 것이겠죠. 우리 환경공단이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최근에는 헤민스님의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을 읽고 있는데 다양성 존중과 차이가 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최라라 대리 혹시 롤모델이나 멘토가 있으신지요.

전병성 이사장 누군가를 롤모델을 삼기보다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어요. 사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형편이 좋지 않아 공부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만 강했어요. 그렇게 살다보니 이 자리까지 와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웃음). 굳이 누구를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면 멘토를 찾아 헤맬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믿고 다듬어보세요.



장순열 대리 3년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지요?

전병성 이사장 전임 이사장님처럼 경영평가 A등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저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A를 향해 기관장인 내가 먼저 솔선수범할테니 직원들이 잘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의 질문에 때로는 유머로 때로는 진지하게 대답하는 전병성 이사장의 말에는 언제나 '소통, 화합, 공평'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다. "회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하던 그가 마지막으로 헤민스님의 책 구절을 인용해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한다.

‘우리는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랑받을 만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해주세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완벽함을 갖추지 않아도 우리 존재는 이미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만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30p, 헤민스님

CONTENTS



Special Theme 그린으로 가는 길

- 10 프롤로그
- 12 Theme Focus
우리가 숨 쉬는 '깨끗한 공기'의 소중함
- 16 Theme Report
내가 숨 쉬는 공기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
- 18 Theme Interview
기후대기본부 대기환경처 대기측정망팀

Section 1. 바르게 가기

- 22 지구사랑수첩
경유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 24 나는야, 지구환경지킴이
당신은 프링글스 통을
'어떻게' 버리시나요?
- 26 내가 Green 세상
한국내셔널트러스트운동 공동대표 김원
- 30 푸루와 그루의 환경이야기

발행처 한국환경공단 홍보팀 www.keco.or.kr

발행인 전병성 발행일 2016년 9월 10일 통권26호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전화 032-590-3015 기획·디자인·제작 (주) 에스아이케이알 02-549-5298



Section 2. 함께 가기

- 32 열정 UP! 행복 UP!
볼링부 VS 당구부
- 36 바라보기
Makeover 신입사원
- 40 가자! 세계로!
나를 지탱해주는 힘
- 42 사랑의 메신저
칭찬릴레이
- 44 직장인 인문학

Section 3. 웃으며 가기

- 48 건강한 삶
어플(App)로 관리하는 건강
- 50 에코스페이스
자연을 살리는 공간,
마음을 나누는 디자인 남이섬
- 52 청렴한 삶
공정하고 바른 사회를 위하여 청탁금지법
- 54 K eco 뉴스
- 58 독자 참여
- 59 행복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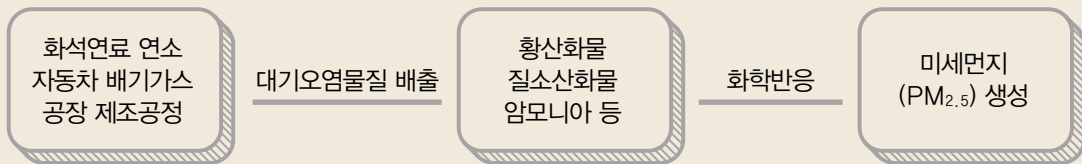
미세먼지 바로 알기

1 미세먼지 발생원

1차 발생원



2차 발생원



“대기측정망 운영과 Airkorea 정보시스템은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고 대기질 통계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국가 대기질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 대기환경처 대기측정망팀 인터뷰 중

2 미세먼지 많은 날 건강생활수칙



장시간 실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섭취



손, 얼굴 깨끗이 씻기



외출 시 식약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 착용



과일, 채소 등
충분히 씻어 먹기



창문을 닫아 외부의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

3 한국환경공단이 추진하는 미세먼지 대처방안은?



전국 97개 시, 군 317개의 도시대기 측정망(80개 시군/259개소), 도로변대기 측정망(17개 시군/38개소), 국가배경 측정망(3개 시군/3개소), 교외대기 측정망(19개 시군/19개소)에서 측정된 대기환경기준물질 측정 자료 수집



Airkorea에 대기환경기준물질 6개 항목(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PM₁₀, PM_{2.5}))에 대한 대기오염도를 대기오염 시계, 대기오염 달력 등의 표현 방식과 접목하여 시간대별, 일자별, 요일대별로 제공



인체 영향과 체감오염도를 반영한 통합대기환경지수를 적용, 4개 등급과 색상으로 표현하여 제공



우리가 숨 쉬는 ‘깨끗한 공기’의 소중함

근래 들어 맑은 하늘을 봤던 기억이 있는가? 2015년 12월 NASA에서 공개한 공기오염 위성지도를 보면 전 세계 중 한국과 중국이 최악의 오염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국토 면적에 비해 가장 높은 오염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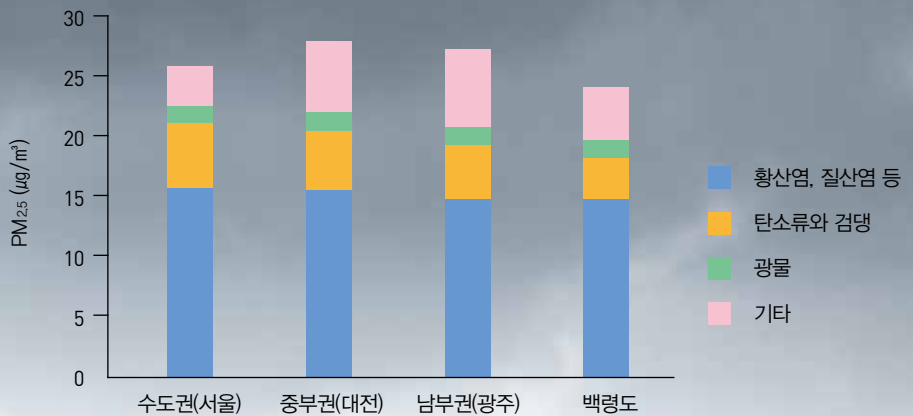
지표에서 약 1~2km 사이에 분포된 미세먼지층은 사람들의 호흡기나 눈에 질환을 일으키고, 비와 섞여 땅을 더럽힌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반짝거리는 별과 대낮처럼 환하던 보름달, 선명한 무지개를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미세먼지를 알아보자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상의 물질인 먼지는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 공장이나 자동차의 배출가스에서 발생한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μm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μm 보다 작은 미세먼지(PM₁₀)와 지름이 2.5 μm 보다 작은 미세먼지(PM_{2.5})로 나뉜다.

미세먼지를 이루는 성분은 미세먼지가 발생한 지역이나 계절, 기상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하여 만들어진 덩어리(황산염, 질산염 등)와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와 검댕,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 등으로 구성된다. 전국의 6개 주요지역에서 측정된 미세먼지의 구성비율은 대기오염물질 덩어리(황산염, 질산염 등)가 58.3%로 가장 높고, 탄소류와 검댕 16.8%, 광물 6.3%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역별 PM_{2.5} 성분 구성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나뉜다. 자연적인 것은 흙먼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이 있다. 인위적인 것은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과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공장 내 분말형태의 원자재, 부자재 취급과정에서의 가루성분, 소각장 연기 등이 있다. 미세먼지는 발생원에서 고체 상태의 먼지로 나오는 경우(1차적 발생)와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경우(2차적 발생)로 나뉜다.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배출된 황산화물이 대기 중의 수증기, 암모니아와 결합하거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온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의 수증기, 오존, 암모니아 등과 결합하는 화학반응으로 미세먼지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화학반응에 의한 2차 생성 비중이 전체 미세먼지(PM_{2.5}) 발생량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매우 높았다.

Tip

2016년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의 300여 개 측정소에서 측정되어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공개시스템(www.airkorea.or.kr)'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수도권, 백령도, 남부권, 중부권, 영남권, 제주도 등 6개 지역에서는 황사 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성분을 정밀조사하고 있다. 그 조사결과를 이용해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에 대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먼지로 가득 찬 한국의 대기

2014년 한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례를 분석해보면, 1월 2일은 강한 북서풍에 황사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유입되어 전체 미세먼지 중 80% 이상이 국외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사가 없었지만 외부 영향이 가장 높았던 날은 1월 17일로 중국의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으로 인하여 국외 대기오염물질 영향이 74%까지 나타났다.

국내 영향이 가장 컸던 7월 27일은 대기정체로 인해 국내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의 영향이 70% 이상이었다. PM₁₀의 경우 이동오염원(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영향이 56%로 가장 컸고, 날림먼지 등 생활주변 면오염원이 31%, 점오염원이 13% 순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달라졌는데, 2012년 국내주요 도시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분석해보면 차량이 많은 서울은 도로이동오염원, 항구도시인 부산은 선박 등 비도로이용오염원, 공업도시 울산은 제조업 연소와 생산공정 등이 주된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를 주요 선진국 도시와 비교해보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14년 황사를 포함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미국 LA보다 1.5배 높고,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보다 각각 2.1배, 2.3배 높았다. 이것은 한국의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와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되어 단위면적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음에도 자리적 위치나 기상여건이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자리적으로 편서풍 지대에 위치해 상시로 주변국의 영향을 받고 기상학적으로 편중된 여름철 강수 때문에 세정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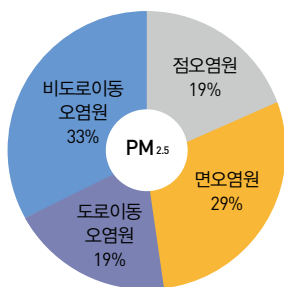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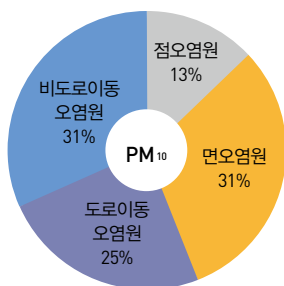
미세먼지와 건강

입자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는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 속까지 스며들어 염증반응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 한해 동안 미세먼지로 인하여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2013년 10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호흡기질환자와 심혈관질환자, 천식환자는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미세먼지 경보를 주의해 살피며 '나쁨' 이상인 날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

정부는 2020년까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10%인 220만 대를 친환경 자동차(하이브리드, 플러그인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원 비율



발생일(2014.7.27)

점오염원: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 오염물질이 특정지점에서 발생하는 오염원

면오염원: 양식장, 야적장, 도시노면배수 등 광범위한 배출경로를 갖는 오염원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 7만기,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120기 등 충전인프라도 구축하여 운행 편리성을 높이고 친환경차에 대한 주차요금과 통행료 할인 등 운행혜택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반 자동차에 대한 오염물질규제 기준도 2016년부터 2015년까지 기존보다 오염물질을 70% 이상 감소시킨 극초저배출차량(SULEV)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노후한 경유차에 대한 조치인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LPG엔진으로 개조, 조기폐차 등은 전국 5대 광역시와 제주도까지 확대에 실행 중이다.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한 정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사업장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배출총량제도, 생활 주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도로이동측정시스템'이나 도로 물청소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WELCOME'이라는 문구의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화면 중앙에 등장한다. 아득고 걷기 시작한 그는 벌레를 밟아 죽이고 뱀으로 신발을 만들어 신고 닭과 새끼 양을 먹고 이유 없이 충을 싸 새를 죽이고 물개를 죽여 옷을 입고 새끼 곰을 잡아 구경거리를 만들고 바다를 오염시키며 도시를 만들어 쓰레기를 쏟아낸다. 이것은 2012년 12월 제작된 'MAN'이라는 스티브 컷트(Steve Cutts)의 애니메이션의 내용이다. 인간의 생각 없고 잔인한 행동과 그로 인해 파괴되는 자연을 그린 3분 30여 초의 짧은 이 작품은 SNS를 통해 150만 번이 넘게 재생되었다. 현재의 환경 문제는 결국 우리 자신이 자연과의 공존을 잃은 결과라는 말을 떠올려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나 한 사람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환경은 우리만의 것이 아닌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귀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숨 쉬는 공기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모든 대기오염도에 대한 자료는 한국환경공단의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NAMIS)' 서버로 전송되어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에어코리아에서는 대기오염도를 이해하기 쉽게 색상으로 제공하며,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농도와 날씨 등 기상정보는 물론 미세먼지 예보와 경보 상황까지 신속하게 제공한다.

날씨처럼 미리미리

**미세먼지
예보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을 무렵,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오염도 예보와 실시간 농도 현황,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경우 취해야 하는 행동요령 등의 정보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환경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 8월 수도권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였으며 2014년 2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예보를 시작하였다. 2015년 11월부터는 전국을 18개 권역으로 세분화하고, '내일의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결과를 '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으로 나누어 매일 4회(오전 5시/11시, 오후 5시/11시) 제공하고 있다.

대기질을 예보하는 절차는 '관측-모델-예측-전달'의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관측'은 기상과 대기질을 감시하여 추세를 파악하는 단계로 기상 관측망과 국내외 실시간 대기질 측정자료가 활용된다. '모델'은 다양한 기상조건 모델링을 통해 기상여건 하에서의 오염물질을 대기 중 농도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기상·배출처리·대기화학·수송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예측'은 관측된 자료와 모델 결과에 예보관의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더하여 예보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전달'은 정리된 미세먼지 예보결과를 TV, 라디오, 홈페이지(에어코리아), 문자,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대기질 예보절차

위험할 땐 빨리빨리

미세먼지 경보제

미세먼지 예보가 미래의 대기질을 예측해 발표하는 것이라면, 미세먼지 경보는 발생한 대기질이 건강에 유해한 수준인 경우 발령하는 제도다. 경보발령 주체는 지자체장으로 '주의보'나 '경보'로 발령한다. 주민들에게 현재의 대기질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고 실외활동 자제나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사항도 알린다. 또한 경우에 따라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나 학생이 활동하는 시설(어린이집, 학교 등)에 대해서 실외수업 제한이나 수업단축 등을 권고한다. 이와 함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나 차량 운전자 등에게 오염물질 저감노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모바일로 바로바로

우리동네 대기질

에어코리아의 주요 내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인 '우리동네 대기질'을 서비스하고 있다. 앱을 열어보면 오늘의 대기오염도와 미세먼지 수치 등 대기질 예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후대기본부 대기환경처 대기측정망팀 우리가 마시는 공기를 위하여 **모으고 분석하고 알리다**

밤하늘을 가득 수놓은 별들을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오염이라고 해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매년 초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공기가 불안하고 또 불안하기만 하다.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이 사실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처럼 망연자실하게 되는 때가 또 있을까? 그리고 그 순간,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누군가에 대해 이제껏 몰랐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나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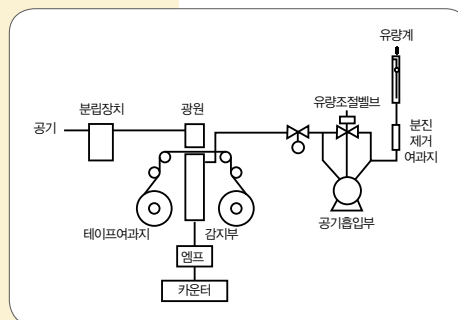
대기측정망팀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교외대기측정망을 비롯한 7종 120개의 대기측정망에서 생성된 대기질 정보를 검증해 국민과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정망의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측정기기의 정도관리 등도 수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대기 측정망 300여 개로부터 측정데이터를 수집하여 검증, 활용하는 NAMIS시스템과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인 Airkorea 홈페이지, 우리동네 대기질 스마트폰 앱을 운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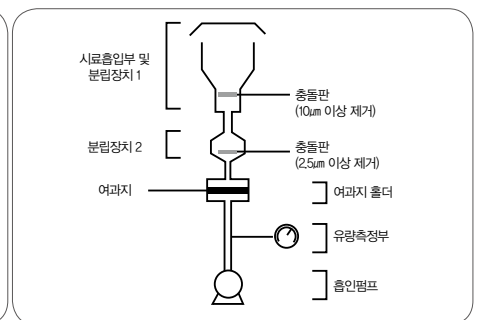
Airkorea와 스마트폰 앱에서는 전국 총 319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 실시간 측정자료 및 미세먼지 예보 결과를 제공하는 등 시간·별·지역별 대기질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에서도 Airkorea 정보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활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측정소의 개수와 측정소 설치 기준, 과정이나 원리가 궁금합니다.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공개시스템(www.airkorea.or.kr)’에서 공개되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 있는 300여 개의 측정소에서 측정된 데이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백령도, 남부권, 영남권, 제주도 등 6개 지역에서는 황사 등의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성분을 정밀 조사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에 대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방법(원리)은 방사선 또는 빛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베타선 흡수법, 광산란법 등)과 미세먼지의 질량을 저울로 직접(수동)측정하는 방법(중량농도법)이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Airkorea 등),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등)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미세먼지(PM₁₀, PM_{2.5}) 농도는 모두 베타선 흡수법으로 측정한 값입니다.



베타선 흡수법 장비구성



중량농도법 장비구성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사업의 용도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최근 들어 겨울과 봄마다 생성되는 고농도의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적시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기관의 기초 정책자료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절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측정과 데이터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irkorea의 대기질 예·경보 등의 정보를 보다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와 함께 맞춤형 환경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질 정보제공 시스템을 통해 건강취약 계층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대기오염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위) 미세먼지 대응 보건용 마스크 배포
(아래) 에어코리아 활용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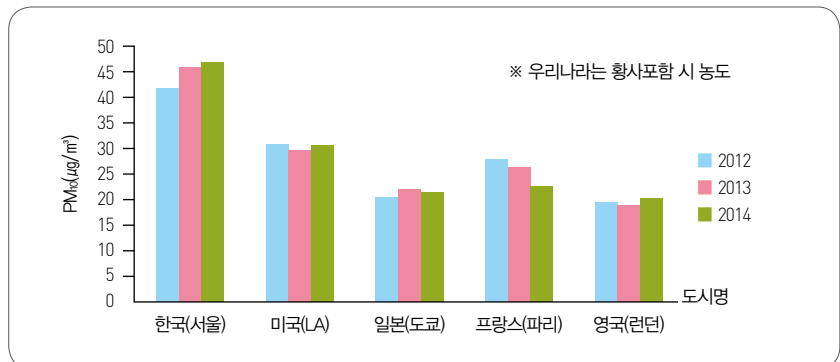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사업으로 개선된 점이 있나요?

Airkorea의 대기질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open API*를 도입하여 민간업체와 함께 국민생활 정보와 연계한 대기질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활용된 공단의 Airkorea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중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TOP 10에 선정되기도 하며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측정망 운영과 Airkorea 정보시스템은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고, 대기질 통계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국가 대기질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세계의 대기오염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대기환경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PM₁₀) 오염도는 2001~2006년까지 51~61 $\mu\text{g}/\text{m}^3$ 사이를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년)' 등의 시행으로 2007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대기질 개선이 다소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주요 선진국의 도시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2014년의 경우 황사를 포함한 서울의 미세먼지(PM₁₀) 농도는 미국 LA보다 1.5배 높고, 프랑스 파리과 영국 런던보다 각각 2.1배, 2.3배 높았습니다.



최근 3년간(2012~2014년) 세계 주요도시의 미세먼지 농도 비교

* open API: 인터넷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웹 검색 결과 및 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을 제공받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



66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최근 에어코리아의
방문자 수는
12년 1,312천 명에서
15년 2,789천 명까지
증가하였으며

에어코리아는
실시간 측정부터
최종 확정 후
통계자료까지
사용자 편의에 맞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99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까닭은 높은 인구밀도, 도시화,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되어 있어 단위 면적당 배출량은 많지만 지리적으로 편서풍 지대에 위치하여 상시적으로 주변국의 영향을 받고 있고 강수가 여름철에 편중되는 기상여건 등 유리하지 않은 조건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대기오염 발생의 직접적 요인과 함께 간접적인 요인 저감을 위해 다양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를 비롯한 질소산화물 등 가스상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도로오염원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고 자가용 사용을 줄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둘째, 전기 사용 절약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해 화석연료 연소를 줄여 특정오염을 유발하는 물질 발생 저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원의 재활용과 절약도 이러한 에너지 사용과 오염물질 발생 저감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고 직장별, 학교별 통근·통학버스 이용을 활성화 하며,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 셰어링(Car-Sharing) 문화도 확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측정망 담당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의 오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지만 실제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분석하여 적절한 개선 계획 수립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싶단다. 그것을 위해 측정망 담당자와 측정망 담당자의 부서는 미세먼지 등을 포함한 대기질의 정보 수준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것을 목표로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측정망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는 내내 뜨거운 태양이 오후 공기를 달고 있었다. 불안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현재 우리 모두가 가진 맑은 공기에 대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경유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요즘 양심 있는 운전자라면 차를 바꿀 때 고민되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다. 바로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를 선택해도 될 것인가'이다. 솔직히 높은 연비와 강력한 힘, 특히 남자라면 놓칠 수 없는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먼지 배출 부담 때문에 포기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린 경유차에 대한 지탄이 만만치 않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입자 크기가 작아 폐나 혈관, 뇌까지 침투해 천식·폐질환, 조기사망을 유발한다. 최근에는 초미세먼지(PM_{2.5})로 조기사망한 사람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5배에 달하는 연간 700만 명이 된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경유차를 도심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자 역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여덟 살 아들을 둔 아빠 입장에서, 매일 출근길에 펼쳐지는 갯빛 하늘이 달갑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경유차를 규제에 파란 하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지하고 싶다. 그렇지만 현실은 냉정하게 봐야 한다. 미세먼지는 직접배출, 자연 발생, 화학반응(2차 생성) 등으로 발생한다. 직접배출은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 등 특정 배출원에서 직접 발생한다. 자연발생은 황사 같은 광물 입자, 소금 입자, 꽃가루나 미생물 같은 생물성 입자 등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화학반응인 2차생성은 황산화물(SO_x),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고 가기엔 무리가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유차 마녀사냥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최적의 수송연료 믹스를 강구하는 것이다.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등 전구물질이 대기에서 반응해 생성된다. 초미세먼지는 주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 중 반응을 통해 2차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많이 생긴다. 지난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황산화물, 질소산화물)가 대기 중에서 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적 초미세먼지를 감안하면 기여율이 대폭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로 연간 최대 1,600여 명이 뇌졸중, 폐암, 심폐질환으로 조기 사망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경유차 등 수송연료 연소에서 기인한다기보다 화력발전이나 제조업 등에서 배출되는 비중이 훨씬 크다. 미세먼지는 전국 전체 배출량 11만 9,980톤 중 에너지산업 연소·제조업 연소·생산공정인 사업장 75%(9만 15톤), 도로이동오염원과 선박·철도·농기계 등 비도로이동오염원 23%(2만 7,301톤), 생활주변 배출원 2%(2,709톤)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서 수송연료의 미세먼지 유발도가 11% 수준인 것을 보면 분명 요즘 미세먼지가 늘어난 것이 경유차 때문만은 아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등 먼지 영향도 많이 받는다.

경유차의 고향인 유럽에서도 최근 경유차 등록이 줄고 있는 추세라지만 이미 많은 경유차가 운행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깨끗한 공기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 여러모로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고 가기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마녀사냥 식으로 경유차를 퇴출시키자는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경유차가 도시 미세먼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여기에는 중국발 먼지와 발전·제조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비교도 이뤄져야 한다.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높은 출력과 연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는 장점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고민해야 한다. 신기후변화체제에 맞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분명 경유차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무작정 경유차를 퇴출로 몰고 가기보다 경유·휘발유·LPG·하이브리드·전기 등 수송연료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경제성을 고려해 적절한 믹스(Mix)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유차 마녀사냥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최적의 수송연료 믹스를 강구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는 경유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기길 기대한다.



당신은 프링글스 통을

‘어떻게’ 버리시나요?

최근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서 흥미로운 질문을 읽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프링글스 통은 어떻게 재활용해야 할까요?’ 프링글스 통은 뚜껑이 플라스틱, 몸통은 종이, 밑바닥은 강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용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이에 버려야 할까?’ ‘재활용 가치가 있어 보이는 고철에 버려야 할까?’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 경험을 되짚어 봤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냥 일반쓰레기로 버렸던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궁금증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재활용업체 관계자에 물었습니다. 번거롭지만 뚜껑, 몸통, 밑바닥을 분해해 재활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수년간 ‘무지(無知)’를 핑계로 자연을 해치는 행위를 해 온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귀찮아서 어떻게 따로 재활용하지?’라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저만의 이기적인 생각일까요?

올해 상반기에는 정말 많은 환경 이슈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문제부터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대책에 이르기까지. 덕분에 환경부에 출입하고 있는 저로서는 눈, 코, 돌 새 없는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환경 문제가 제기됐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 문제는 중요하지만, 결코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였습니다.

다시 프링글스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프링글스 통의 재활용이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은 제조사에 있습니다. 프링글스 제조사에서 환경에 책임을 느껴 재활용이 쉬운 용기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생산설비 교체로 제품의 가격이 대폭 오를 것이 분명합니다. 과연 소비자는 이를 이해해줄 수 있을까요? 폭스바겐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을 적발하고, 과징금 처분과 함께 인증취소, 이미 판매된 12만여 대에 대해 결함시정(리콜)을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폭스바겐의 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 이 기사는 한국환경공단인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처벌이 이뤄진 지난해 11월 폭스바겐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7%나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 폭스바겐 매출이 25% 줄어든 것과 대조적입니다. 위기를 맞은 폭스바겐의 공격적인 프로모션에 국내 소비자들이 응답하면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라고 다를까요. 불과 몇 달 전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과 경유 가격 인상안을 만지작거리자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명백히 경유차 소유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를 형성하는 질소산화물의 67.7%를 수송 부문에서, 이 가운데 76%가 경유차에서 배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경유차 대책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클린디젤’ 정책의 실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점에 대한 지적과는 별개로, 경유차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셈입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2022년까지 ‘원전 제로(Zero)’를 선언하고 있는 독일은 전기료가 우리나라의 4배 수준입니다. 2000년 독일 전체 전기생산량의 7%만을 담당하던 신재생에너지가 25%까지 늘어나면서 전기료도 훌쩍 뛰었습니다. 흔히들 ‘환경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합니다. 당장 환경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세대는 불편만 감내하고 좋아진 환경을 누리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후손들을 위해 현재보다 4배 많은 전기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있을까요?



66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실천적 방안을 고민할 때입니다.
높아진 관심만큼 기꺼이 환경에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99





건축가이기
환경 운동에
때문에

더 생생
한 밤에
있었습니다

환경운동가이기 이전에 건축가인 김원 대표는 건축 설계 작업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뤄 건축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인사다. 자그마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은 감히 흉내 낼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건축가와 환경운동가, 상충되는 두 직업을 동시에 가지게 된 김원 대표를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김원
한국내셔널트러스트운동 공동대표



환경에 대한 태도를 가지다

김원 대표는 자신이 건축가로서 취하고 있는 태도가 다른 건축가들과 다르다는 전제를 두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환경에 대한 생각은 그가 건축을 알기 전인 중고등학생 때 산악부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인간과 환경에 대해 배웠던 것이 계기라고 한다. 중학교 3학년 때 설악산에 처음 올라갔는데 당시는 한국전쟁 끝나고 입산금지가 막 해제되었을 때였다. 그는 거기서 심마니들을 만나며 놀라운 경험을 했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그들이 자는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 그곳은 바람도 불지 않을 뿐더러, 따뜻한 땅이었다. 심마니들 말로는 '땅 기운이 달다'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 것이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김 대표가 그런 장소를 어떻게 찾느냐 묻자 심마니들은 "풍수가 어때니, 관산법이 어때니"하며 쉬운 방법으로는 산 꿩이 알을 낳는 곳을 보면 된다고 했다. 어미 꿩이 사고로 죽어도 알이 그런 곳에 있으면 부화를 한다는 것. 김 대표는 나중에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가 그 심마니들이 아는 것을 서양식으로 정리한 것이라 이해하기 시작했다.

건축가는 환경을 파괴하고 거스르는데 앞장서는 직업이다. 나무를 베고, 산을 깎고, 강을 메우고.... 하지만 김 대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운동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한다.

“환경을 파괴하는 건 맞지만 최소한으로 훼손시키고, 훼손시키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최대한 자연의 것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건축가가 아니겠는가.”

사실 요즘 건축은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것은 다르다. 당내 내로라하는 김수근, 김종업을 잇는 건축가로 촉망받던 시절부터 김원 대표는 환경을 생각하는 건축을 확립하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그의 건축에서 우선적으로 언급돼야 하는 것은 '건축대지에 대한 탁월한 주변 환경 해석능력'이다. 건축은 조각이나 회화가 아니므로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면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주변의 도시 상황과 자연 지형에 잘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태도를 실천하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데에는 개발논리라는 것이 숨어 있다. 개발을 뒤집어 말하면 자연 파괴, 역사 파괴와 일맥상통한다는 게 김원 대표의 말이다. 김 대표는 “건축가들이 개발논리에 앞장서 자연을 훼손시켰다. 건축가들이 각성하고 자연 지킴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지난날을 고백했다.

이에 대해 반성하자는 의미로 김 대표는 건축가협회 이사, 위원장을 지내는 동안 ‘한국건축가들의 환경선언문’을 만들자고 주장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지금은 건축가협회가 앞장서서 환경설계분과위원회도 만들고 환경설계 가이드북도 만들어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 선언문을 통과시키는 데 자그마치 20여 년이 소요됐다.

“건축이란 집이나 건물 한 채를 잘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살고, 공동체가 살아서 사람들이 오래 자기 문화를 지키며 행복하게 살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더 편해지고, 문화 흔적도 지킬 수 있는 재개발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환경문제는 새 시대 건축과 도시의 최우선 과제

한국 사람들은 ‘한옥’이라는 좋은 건축 양식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발전시켜왔는데 이것은 자연에 순응하고 친화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양은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정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건축으로

인한 자연 파괴가 훨씬 많다. 김 대표는 “건축이라는 방식이 어쩔 수 없이 자연을 훼손시키는 일이라면 최소화 한다는 임무와 사명감을 가져야 할 사람이 바로 건축가”라고 거듭 말했다.

김 대표는 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국회 환경포럼의 정책자문위원과 환경문화예술진흥회 및 동강 내셔널트러스트, 그리고 동강을 사랑하는 문화예술인 모임의 공동대표를 지냈다. 그러던 2000년에 국무총리실 영월 동강댐 공동조사단 문화분과위원장에 천거되어 동강댐 백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정부국책사업을 민간이 막아낸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환경운동가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굴업도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고자 했던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발언권이 생겼다. 현재는 ‘굴업도를 사랑하는 예술인’의 모임 대표를 맡아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치고 있는 실천가이다.

환경을 심사숙고하는 건축가

김원 대표는 환경을 생각하니 건축을 보다 폭넓게 해석하게 된다고 했다. 이러다 보니 다른 이들이 말하는 ‘작품의 완결성이다, 디테일이다’하는 부분이 조금 우습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에게 너무 일찍 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소회를 밝힌다. 그는 예전에 동료들이 창문의 프로포션 등에 대해 밤새 이야기하는 걸 보며 건축 행위가 그것만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지금도 그의 블로그(<http://blog.naver.com/kimwonarch>)에 들어가 보면 ‘인천 굴업도 시민단체 생태계 보전활동 본격화’ 같은 기사가 갈무리 되어 있고, 환경 문제에 대한 그의 견해가 그 특유의 드라이한 어조로 자주 실린다. 김원, 그는 건축가이기 전에 잠시 이 땅을 빌려 쓰는 우리가 만난 환경운동가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건축이란 ‘건강’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이 건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누를 끼치게 되는 인공 구조물을 만드는 업을 하긴 하지만, 환경에 최소한의 부담감을 지우는 건축을 하자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특히 일부 건축가들의 오불관연적인 설계 행태를 비판한다.

“건축을 그저 개인의 작품 활동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건축에는 공공성도 있을뿐더러, 무엇보다 그 안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 특유의 약간 느린 듯하면서 힘 있는 어조는 평생을 두고 버린 듯한 날카로움과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건축가 김원 대표의 이런 비판을 들으며 일견 그의 건축 작업이 소위 ‘디자인’ 적으로 매력적이지 않기도 했던 이유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사람이 사는 곳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그리고 환경이 더 중요함을 힘 있게 강조한다.



굴업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연을 지키는 내셔널트러스트운동

그는 건축가이면서 동시에 맡고 있는 것이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운동본부 대표이다.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라니, 생소하다. 이 운동은 산업혁명을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영국에서 1895년에 시작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산기증과 기부를 통해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확보하여 시민의 소유로 영구히 보전하고 관리하는 시민운동을 의미한다.

영국에서 처음 발생할 때의 공식 명칭은 '자연이 아름답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보전하기 위한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 for Places of Historic Interest and Natural Beauty)'이다. 1907년 내셔널트러스트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내셔널트러스트가 확보한 자연·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국가의 소유가 아닌 '시민의 유산'으로 사회적 소유가 실현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화로 내셔널트러스트가 확보한 시민유산은 '양도불능의 원칙'이 보장됨에 따라 '영원한 보전(Permanent Preservation)'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 이 운동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2000년이 되어서다. 김원 대표는 처음부터 관여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앞장섰다.

트러스트라는 것을 직역하면 신탁이라는 뜻인데 기금을 걷어 그 돈으로 무작정 '자연을 보호하자, 자연을 아끼자'라고 공허한 외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개입해서 자연과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다. 회원들이 기금을 내어 일정 금액이 모이면 문화재 개보수를 하고 유지관리하고 민간단체의 이름으로 매입해 더 이상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3,000여 명의 회원이 있고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현재 강화매화마을 군락지, 최순우 옛집, 동강계장마을, 나주도래마을옛집, 관진규 아틀리에, 연천 DMW일원원야, 청주 원흥이 방죽 두꺼비 서식지, 내성천 범람원 등을 확보해 보호, 보존하고 있다.

김원 대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이 있어야 우리의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강조했다.



동강댐 반대 거리시위. 대한민국 처음으로 국책사업을 민간단체가 저지한 동강댐 백지화



백두대간의 자병산 석화산 광산. 산 하나가 모두 없어져서 시멘트가 되고 그 시멘트로 전국이 콘크리트 공화국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두 배, 세계 최대 시멘트 소비국가.



“우리 국토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is 뭔들”

심은경







리듬, 밸런스, 타이밍, 자신감
10개의 핀을 향해 달리다

볼링부

리듬, 밸런스, 타이밍, 자신감이 어울릴 때 볼링공은 생명을 지닌 것처럼 레인을 뚫린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회원들의 건강, 화합, 자신감이 어우러져 즐겁게 임한다면 고득점도 행복도 성취감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믿습니다. Keco 볼링 동호회 파이팅! (백육진 과장, 자원순환본부 석면관리처 석면환경관리팀)

2000년에 창립하여 현재 59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볼링 동아리의 정기 모임은 매월 홀수 주(1, 3주) 월요일 7시부터다. 당일 참여한 회원의 실력과 특징에 따라 볼링부의 총무인 김태환 대리(자원순환본부 석면관리처 석면환경관리팀)를 주축으로 팀을 나누고, 그렇게 나눠진 팀은 총 3개임을 원칙으로 게임을 시작한다.

우리가 볼링장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이제 막 화이트보드에 쓰여진 팀을 확인하며 각자의 라인으로 움직이는 중이었다. 익숙하고 여유로운 몸짓으로

공을 고르는 사람과 가벼운 준비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 둘 셋 모여 남은 한담을 나누는 그들 사이에서 순하고 고른 미소를 가진 김태환 대리가 인사를 건넨다.

“볼링은 누구라도 간단히 즐길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입니다. 볼의 무게를 이용한 투구 동작은 적당한 전신 운동이 되기 때문에 운동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기량만 우수하면 체력이 강한 사람을 이길 수도 있는 드라마틱한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아리는 오늘과 같은 정기모임 외에 평일 저녁에는 밴드를 통해 비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으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10시~14시까지 자유볼링을 통해 자세교정 및 투구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쪽에서 환호성이 들린다. 볼링부 최고의 실력자이자 동아리 회장인 이영석 대리(기후대기본부 환경인증검사처 환경측정기검사팀)가 스트라이크를 던졌다. 각자의 라인에서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일인 듯 기뻐하며 박수를 친다.



“입사 후 소속팀이나 동기들과의 친분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직원을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론 그래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아리는 남녀노소, 직책을 떠나 공통된 무언가에 대한 열정으로 참여해 행복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고민을 날려버리고 귀가 후에는 가족에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곳, 제가 생각하는 동아리는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품입니다.”

오늘 참석한 인원은 16명, 화이트보드에 정리된 5개의 팀이 각자의 라인에서 공을 굴리며 때로 박수를 치고 때로 아쉬워하며 서로를 향해 웃고 말을 걸고 등을 두드리고 있었다.

“차장님부터 사원까지 다양한 직책을 가진 회원들이 모여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지금은 직책을 떠나 형, 오빠, 동생 등 다양한 호칭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온 신규회원들이 사원-팀장, 대리-차장 사이의 대화를 듣고 후배가 건방진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이야기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분들도 직책에 상관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서로를 대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모여 함께 볼링을 치는데 의의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환경부장관기 볼링대회에서 1~3위 수상을 하기도 했을 만큼 볼링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신규회원이나 볼링에 관심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자체나 점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회원 대부분이 130점 이상의 점수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볼링은 공을 들고 나 홀로 나아가 목표를 향해 던지고 돌아오는 게임이지만 그런 나의 뒤에 언제나 응원하고 박수를 쳐주며 손을 부딪여주는 동료가 존재하는 게임이기도 하다. 직장에서의 동아리 활동이 어때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사람을 만나고, 만난 사람들과 더불어 보다 넓어지고, 행복해지고 여유로워질 수 있는 곳이라면 좋은 동아리가 아니겠냐고 답한다. 볼링의 매너 중 하나는 옆 레인의 사람이 공을 던지려 나갔을 때 한 템포 쉬며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한다. 요즘 우리는 뭐든지 빨라야 하는 시대를 산다. 만약 당신이 볼링부에 참여하기로 결심한다면, 한 달에 두 번 당신 뒤를 지키는 동료들의 든든함과 누군가를 위해 한 발 물러서 기다리는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담긴 사각의 세계와 마주서다 당구부

이 사각 안에는 복잡 다양한 게임의 모미가 담겨있습니다. 단순히 이기고 진다는 승부를 떠나 작용과 반작용,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게 합니다. 함께 즐기고 있지만 이 사각의 세계와 마주하는 것은 오로지 나 혼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를 다른 사람이 풀어내고, 다른 사람이 형클어 놓은 것들을 내가 정돈하기도 하며 주고 받는 모미도 공존합니다. 혼자이자 함께하는 것, 그게 매력 아닐까요? (당구부 회장 임병문 팀장, 올바른지원팀)

2010년도에 시작되어 현재 50명 정원인 당구 동아리의 정기 모임은 매월 2째 주, 4째 주로 월 2회 운영된다. 비슷한 지역에 있는 같은 이름의 다른 당구장을 향하다 부랴부랴 방향을 바꿔 도착해보니 오늘 모임의 참가자는 10명, 3개의 당구대에서는 벌써 경기가 한창이었다. 공이 핀을 때리는 소리와 기계음, 여기저기 환호와 박수가 가득하던 볼링장과 달리 공이 공과 마주치는 소리 외에는 정적이기까지 한 당구장의 대조가 재미있다. 진지한 얼굴들 사이로 한 손에 큐를 들고 장난스러운 미소를 가진 당구부 총리임수정 사원(수질오염방제센터 수질측정망팀)이 다가왔다.

“당구는 격식이 있고 예의가 있으며 정적이면서 매우 활동적인 스포츠입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공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동아리 모임은 주로 회사 근처의 당구장에서 진행합니다. 예버리지가 낮은 회원들은 회장님과 고수분들이 팀을 이뤄 1:1 레슨을 해줍니다. 정기모임으로 꾸준히 실력을 쌓아 다른 지역본부나 외부기관의 당구동호인들과 경기도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그녀의 소개로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인터뷰를 시작했다. 진지하게 테이블을 바라보던 얼굴들이 말을 걸 때마다 신기할 만큼 해맑은 미소를 보여준다. 자신들만의 세계에 몰입하다 깨어난 사람의 얼굴이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것임을 처음 알게 된다. 이들이 하루 종일 담당하는 업무가 있고, 때로는 사무적으로 움직였으리라 짐작하는 것이 어렵다. 완벽하게 분리된 두 세계가, 당구공이 굴러가는 사각의 세계에서처럼 때로 조화를 이루고 또 때로는 각자의 영역을 지키며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없다. 바쁜 업무를 마치고, 평소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과 만나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일 테니까.

“저희 동아리의 회장님은 아주 쿨한 분입니다.
뭘 진행하건 시원시원하세요. 사회초년생인
회원들에게 많은 조언도 해주셔서 당구 외에도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당구를 즐길
줄 아는 분들에게는 인품이랄까, 특장이랄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도 지나치지도
않다라고 할까요? 저희 동아리는 주로 회사 근처
당구장에서 모입니다. 한 달에 3,000원 내고
당구도 배우고 밥도 먹고, 좋은 선배님들께 오래
남는 이야기도 듣고 너무 좋지 않나요?”

당구는 큐를 잡고 내가 쳐야 할 공의 방향을
결정하는 스포츠다. 길이 없는 곳에선 길을
만들어야 하고 막힌 곳에서는 강행돌파를

선택하며 턴을 넘기거나 다음 사람에게 미루며
안전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때도 있다. 내가 치는
모든 공이 원하는 길로 가주는 것도 아니며 힘을
주고 강하게 친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당구는
강약을 조절해야 하며 때로 돌아가는 법을 알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회란 스스로 만들거나 기다리며 적절한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만약
당신이 당구 동아리를 선택하게 된다면 듣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유쾌함과
편안함, 그리고 사각의 세계가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말이다.

“직장 내에서의 동아리 활동이란 직장생활이
아닌 그저, 내가 즐기고자 하는 스포츠를 함께
즐길 누군가가 많아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기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대가가 있듯, 같은
취미를 즐기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어울릴
수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진
동아리이지만 활동을 할 때만큼은 서로의
위치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즐길 줄 아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머리를 써야 하는 게임인 당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다고 동아리 총무이자 오늘 모임의
유일한 홍일점인 임수정 사원이 말했다. 모두들
너무 잘해주시고 좋은 분위기인데도 여자들이
많지 않다고,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
아쉽단다. ‘당구가 왜 좋으냐’는 질문에 그들
대부분 ‘어려운 질문이다’라며 웃는다. 좋아하는
것에 대해 왜 좋아하느냐는 질문 자체가 어찌면
어리석었을 것이다. 좋다는 것에 이유가 있을 리



Makeover

신입사원
성공적

이번 가을호에서는 두 명의 신입사원을 선발, 그들을 위한 퍼펙트한 비주얼 메이크오버 프로젝트를 감행했다.

단 몇 시간만에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공개한다. 당신도 이렇게 변하고 싶다면, 가을호가 전하는 리얼 메이크오버를 위한 팁에 주목할 것!



메이크오버라는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비주얼 변신이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물을 눈으로 보고 만족감도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메이크오버를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된다. 특히 만족스럽지 못한 외모로 자신감을 잃었거나 주위에서 외모에 대해 한마디씩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비주얼 메이크오버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말 것. 다이어트, 성형수술만이 비주얼 메이크오버가 아니다. 기존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변화하는 것도 비주얼 메이크오버의 한 종류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에게 잘 맞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보이시한 스타일이 어울리는 사람이 무조건 여성스럽게 변한다고 해서 좋은 메이크오버가 아니란 말씀!



평소 출근룩으로 입으신 거예요?

홍선진 청바지에 티셔츠도 즐겨 입지만 출근할 때에는 셔츠에 스커트로 입어요(웃음). 굉장히 평범하죠.

박종찬 청바지에 티셔츠보단 셔츠에 정장바지, 세미 정장을 즐겨 입어요. 오늘은 출근이 아니라 평소보다 편하게 입었습니다.

본인의 가장 큰 스타일 고민은 무엇인가요?

홍선진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학생 티가 남아있는 캐주얼 스타일이에요.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이 커서인지, 그들처럼 화사하고, 멋있을 줄 알았는데 대학생 때 입던 평범한 캐주얼룩, 칙칙한 옷만 입는 것 같아요. 직장인에 대한 환상이었을까요?

박종찬 옷을 못 입는다, 잘 입는다 아예 평가를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평범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어디에 어떻게 포인트를 줘야 할지 모르니까 옷가게나 헤어숍에서 추천해주는대로 했어요. 미팅하죠.



어떤 스타일로 메이크오버 됐으면 좋겠어요?

홍선진 진짜 제게 어울리는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편하지만 차려입은 듯한 느낌이라까? 화사 분위기에 어울리지만 일할 땐 굉장히 편한 스타일을 찾고 싶어요.

박종찬 저는 어떻게 입어야 멋지고 어떤 헤어스타일이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자신에 맞게 변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은 옷차림에서도 신입사원만의 열정, 에너지가 넘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울까요? 제게 잘 어울리고 멋있는 신입사원의 모습으로 메이크오버됐으면 좋겠어요.



협찬 남성복 : 커스텀멜로우(정장)

리즈, 에피그램(비즈니스캐주얼)

여성복 : 럭키슈에트(정장, 비즈니스캐주얼)

슈콤마보니(구두)

장소 JOYKOLON(코오롱 F&C무교직영점)

컨설팅 도움말 크레비 이미지컨설팅(www.crevie.co.kr)

#봄차려제 오사네~

선진씨는 골드와 실버 천을 기본으로 본인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는 작업이 시작되자 자신이 봄빛과 어울린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워했다. 평소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눈길조차 주지 않던 컬러들이 내게 꼭 맞는다니! 놀라움의 연속이다. 에디터가 보기에는 밝고 호기심많은 그녀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찾았다는 느낌.

#여자를 완성하는 헤어

멋을 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출근 시간에 쫓겨 늘 마음처럼 정리되지 않던 헤어는 선진씨의 당찬 출근길을 방해하는 제1의 요소였다고 한다. 때문에 지극히 평범해보이고 손질이 쉬운 헤어를 고집했던 그녀. 솔이 많은 데다 정리도 되지 않아 무거워보이는 헤어스타일은 선진씨가 가진 발랄한 이미지를 방해하고 있었다. 헤어스타일이 사람의 인상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헤어스타일의 기본은 얼굴형을 파악하는 것이다. 길이를 줄여 동그란 얼굴을 극대화시키기보단 층을 내어 무게감을 줄이고 웨이브로 산뜻함을 더했더니 한층 그녀가 밝아보였다.

#화사함

#봄빛담은



“스스로를 알고 정돈하는 계기가 되어 만족스럽습니다.”

홍선진 환경안전센터 화학물질관리팀(23)

#스타일 체인지

출근복장이 딱히 정해져있지 않는 환경공단의 출근룩은 자율복장이다. 하지만 자율이 가장 어렵다는 신입사원이 아니던가. 선진씨는 피부가 어두운 편이라 옷을 고를 때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고백했다. 편하게 입자니 너무 대학생같고, 차려 입자니 일하기가 불편하고. 메이크오버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본인이 원하는 화사하면서 생기 넘쳐 보이는 신입사원의 스타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코디네이터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 편안함과 격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선진씨는 욕심쟁이!! 꼭 맞는 의상을 입고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날 줄 몰랐다.

메이크오버, 마음에 드나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연예인이 된 듯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었어요.

나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았으니 무작정 예뻐보인다고 충동구매하거나 유행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서, 연예인을 따라서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그런 일은 이제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스스로를 알고 한단계 UP하는 계기가 되어

만족스럽습니다.



#에너지틱

#가을남자



오늘 만족스러웠나요?

즐거웠어요.

처음엔 메이크오버 하고 싶은 마음, 하기 싫은 마음

반반이었는데 잘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한테 맞는 컬러, 스타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어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추천도 하고 싶고요.

신선한 경험, 고맙습니다!

#역시남자는 가을

아침마다 ‘오늘 뭐 입지?’라는 고민을 하지 않는 직장인이 있을까. 메이크오버에 참여한 종찬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패션이란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라는 데 도대체 나한테 잘 맞는 게 어떤 것인지 알 길이 없었던 종찬 씨를 환경공단 내 최고 ‘패션왕’으로 만들기 위해 컬러컨설팅부터 진행했다. 본인에게 어울리는 색(色)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머리카락, 눈동자, 피부색으로 결정되는데 종찬씨는 가을컬러가 어울리는 진짜 가을 남자라고 한다. 괜히 가을이 남자의 계절이 아닌가보다. 단, 종찬 씨는 아토피 피부여서 레드컬러의 의상을 고를 땐 조심!

#가름난 얼굴형

어떤 헤어스타일도 소화할 수 있는 가름난 얼굴형인데다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잘 알고 있었다. 손덜 것도 없어 지저분한 잔머리 정리만으로 깔끔한 느낌을 살렸다.

“저도 몰랐던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박종찬 상하수도시설처 수처리진담팀(24)

#메이크업은 낯설어

난생처음 메이크업을 해본다며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눈썹정리와 평소에도 부담없이 하고 다닐 수 있는 가벼운 메이크업으로 깔끔하고 스마트한 느낌을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 남자들은 눈썹 밑의 잔털만 정리해줘도 인상이 달라보인다는 게 메이크업아티스트의 조언!

#패션왕 출동

컬러매칭과 헤어, 메이크업을 통해 확연히 달라진 이미지에 날개를 달아줄 차례이다. 다양한 색감과 스타일을 옷을 맞추어 최종적으로 2벌의 의상을 선택했다. 처음 입어보는 옷 스타일에 어색한 내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입가에 새어나오는 웃음은 숨길 수가 없다.



나를 지탱해주는 힘



스위스의 생활은 고되다. 스위스의 국민으로 이 나라에서 살아가기엔 참으로 좋은 곳이지만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으로 살아가기엔 그리 따뜻한 곳은 아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도 심심찮게 스위스의 소위 '살인적 물가'의 악명을 들을 수 있으니, 그것이 어느 정도일지는 다들 짐작할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꼭 여기에서 더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 나의 꿈에 다가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내 꿈을 향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길을 걸을 때 언제나 땅 쪽을 참 많이도 두리번거렸다. 길가에 조그맣게 나있는 여뀌, 개망초, 아파트 화단에 다닥다닥 피어나는 냉이, 민들레, 제비꽃들이 그렇게 양증맞고 예뻐 보일 수 없었다. 다른 아이들이 꽃을 보고 꽃만 뽐내며 놀다 버릴 때 나는 꽃을 쓰다듬고 정 아슬아슬한 뿌리까지 조심스럽게 집 베란다 화분에 심어 키우곤 했다. 제멋대로 꽃을 이사시켜 내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 부르기도 했으니 그 꽃들 입장에선 참 고맙고도 맹랑한 꼬마였을 것이다. 그렇게 식물들을 좋아하던 어릴 적 내가 지금 UN기관에서 국제적으로 식물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아무리 스위스 생활이 고되다 해도 그 보람찬 마음을 이길 도리가 없는 것이다.

스위스에 오기 전까지, 사실 국제환경전문가양성과정을 듣는 동안에도, 국제기구라 하면 마치 산 위에 있는 큰 성처럼 느껴졌었다. 그저 아득히 멀고 너무나 특별하여,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주변에서 들리는 ‘국제기구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에 대한 소문은 나의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켰었다. 환경공단의 도움으로 그 큰 성에 발을 들여놓자, 나의 두려움과 걱정은 ‘안 해본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었던 것임을 깨달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업무에도, 국제기구의 구조에도 익숙해졌고, 사실은 자신의 분야에 관한 탄탄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면 두 팔 벌려 환영받는 곳이 또한 국제기구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가 일하는 CITES는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의 약자로, 우리말로 바꾸자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협약’이다. 즉, 인간의 이용, 서식지 파괴, 밀렵 등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식물 종(種)들의 국제 거래를 제한하는 협약이라고 간단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국제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가 동물 종이나 식물 종의 지속적인 생존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이 사무국 중 나는 과학부서 중 식물부서에 속해있다. 사무국이 작은 탓에 식물을 담당하는 사람은 나와 내 상사 둘 뿐이며, 그런 탓에 나는 나의 상사와 거의 동등한 업무 수준의 초분류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의 중요한 업무를 맡는 느낌이라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지만, 상사를 포함한 여러 직원분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차근차근 업무를 해나갈 수 있었다. 마침내 CITES 약용식물 종의 목록을 비롯한 약용식물 관련기관에 관한 문서를 완성했고, 이것은 CITES 약용식물 전문가들 사이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로 쓰이게 되었다. 또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CITES 약용식물에 관한 연구가 더 진행될 예정이며, 이 모든 자료는 CITES 공식 홈페이지의 약용식물 포털에 실릴 예정이다. 나는 이 성과를 발판으로 또 다른 UN기구인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와 이곳 CITES와의 컨설턴트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

나의 성공이 과연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좋아서일까? 단연코 아니다. 난 회사 업무에 익숙하지도 못했고, 무대에 올라서면 굳어버리는 탓에 멋진 발표 실력도 없으며, 유희파 출신도 아니다. 내가 국제기구에 인턴으로 처음 발을 들여, 컨설턴트 계약을 바로 따 낼 수 있었던 것은 주변 분들의 도움 덕분이 대부분이었고, 굳이 나에게서 그 이유를 찾자면, 내 비전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어느 회사에 가서 어느 타이틀을 따서 어느 연봉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어떤 회사에 가든, 어느 자리에 있든 반드시 식물과 관련한 업무를 해야지. 식물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또 잘 보존해서 현재 사람들이 그들을 잘 즐기고, 후세대도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식물을 오래도록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지.’라는 확고한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 오기 전까지 꾸준히 식물에 관련된 분야라면 학교, 사교육기관, 회사, 혹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선 관심을 갖고 도전하고 열정적으로 배우고 일했었다. ‘식물 쪽을 공부하면 돈은 못 벌어, 잘 사는 건 포기해야 해.’라는 현실적인 충고를 수도 없이 들었고, 그때마다 회의감도 들고 마음은 아팠지만, 결국 식물에 대한 애정이 그 모든 걱정을 뛰어넘어 나를 다시금 달리게 했었다. 내 분야에 진심으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뚜렷한 목표를 따라 고집 있게 해나간 것이 두 개의 국제기구와 계약을 맺는 결실을 가져다주었다고 믿는다.

스위스 생활이 녹록치 않지만, 이곳에서 힘들 때마다 CITES 인터뷰 때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새기곤 한다. ‘요즘 일 잘하고, 학점도 높고, 외국어도 유창한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열정을 갖는 이는 얼마나 될까요? 저는 오랫동안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여러 봉사활동을 해왔고 다양한 강의들을 찾아다니며 들었습니다. 서류상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 저는 그보다 중요한 마음가짐의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나의 이랬던 마음가짐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라는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해져, 나는 CITES 인턴이라는 경험을 얻게 되었고, 더 나아가 더 큰 기회인 취업을 가져다주었다고 믿기에, 그 마음을 절대 잃지 않도록 할 것이다.



마음을 고백하고 싶은 당신!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보내는 사람 |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 류승현

받는 사람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지원팀 이민선

근무해보지 않아 근무해보고 싶었던 부산. 그 이유는 그곳에 달맞이 고개와 청사포가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민선 팀장이 있기 때문이다. 인연은 17년전 본사 산업진흥처에서 만난 돼지 4남매. 12년 전배 돼지띠인 김환기 전 이사님, 나와 같은 해 돼지띠인 김애선 처장, 그리고 락동갑 그녀.

그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처음 만났던 그대로인!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약 10년 간을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근무를 탁월한 기획력으로 1등으로 만들어 놓고 팀장으로 발탁된 이민선팀장. 그녀는 내가 만난 인연 중 가장 특이한 인연이며 후배지만 존경하는 사람 중 한명이다. 그녀가 있기에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뿐만 아니라 공단은 발전할 것이다.

22년전 8월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편하게 해 주는 그녀~ 그래서 고마운 그녀입니다. 언제나 유쾌하게 사람들을 만나는 그녀~ 오랜 근무기간에 어울리는 경험과 지식을 가진 그녀~ 여전히 우렁차게 담을 넘는 목소리를 가진 그녀~ 그럼에도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도 먼저 낮아지는 그녀~ 불편한 일들도 쉽고 간단명료하게 풀아가는 그녀~ 어떤 상황에서든지 편하게 주변과 소통하는 그녀~ 동기부여와 긍정적인 자기로 주변 사람들을 세우는 그녀~ 그런 그녀를 칭찬합니다.

보내는 사람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지원팀 이민선
받는 사람 | 대구경북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사업계획팀 배은주

언제나 전화하면 "안녕하세요~ 계장님"하면서 웃으면서 전화받는 지혜씨 인사발령으로 갑자기 회계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젠 죽었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리저리 도움을 요청해야 했지만, 나이가 무서워(?) 쉽게 도움을 내밀 수가 없었지~~ 그때 지혜씨를 만나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을 느꼈어요~ 어떤 걸 물어도 "그거 어려운거 아니예요~. 틀리면 고치면 돼요~"하면서 힘을 주었지요. 덕분에 상반기 결산 잘 마무리 되었어요. 내 팔하고 몇년(?)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래서 더 고마워요~ 딸 같은 지혜씨 덕분에 이젠 회계업무가 겁나지 않게 되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항상 웃으면서 전화 받아 주고, 언제든지 대구로 놀러오면 전화해요~ 맛있는 식사와 커피 대접할게요 ^_^

보내는 사람 | 대구경북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사업계획팀 배은주
받는 사람 | 충청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사업계획팀 김지혜



아재개그의 선두주자이자 매력쟁이 조성주차장님!
잘 지내고 계시죠? 2012년도 고졸채용 면접 때 처음
뵈고, 충청 사업계획팀에서 3년을 동고동락하며,
카폴도 하고 함께한 추억이 많습니다. 항상 팀원들의
SOS에 찡그리지 않고 흔쾌히 나서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차장님과 함께 하면서 저의 기안에
영혼을 담을 수 있게 되었고, 차장님께 배운 운전
실력으로 대전 시내를 잘 누빌 수 있게 되었어요~~
저에게 언제나 만능 해결사, '맥가이버'로
남아있을 차장님! 출근길 차장님의
아침인사와 웃음이 그리워요 ㅠ.ㅠ
차장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보내는 사람 | 충청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사업계획팀 김지혜
받는 사람 | 경영지원본부 인재경영처 인사팀 조성주



보내는 사람 | 경영지원본부 인재경영처 인사팀 조성주
받는 사람 | 충청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사업계획팀 오정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여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재주가 있는 오정아 대리!!! 낯선 땅,
낯선 업무, 낯선 직원 등 낯선 환경에 업무적응이 쉽지 않았겠지만
바로 적응하여 육아휴직과 산전후 휴가로 공백이 된 여직원들의
빈자리를 바로 잘 메워 주었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남을 먼저 배려하여 우리
사무실에 오면 왠지 기분이 좋아진다는
칭찬을 다른 부서 직원들로부터
많이 들었어. 나 또한 업무를 하며
오대리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이 기회를 빌려 고마움을 전할게. 항상
인사성 밝고 쾌활한 모습 계속 유지하길
바라~



보내는 사람 |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강원지사 자원순환지원팀 최현진
받는 사람 |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최미영

명쾌하고 당당한 일처리는 기본, 까망고 동그란 눈은 매력포인트인
최미영 과장님. 과장님은 2005년 제가 공단에 처음 입사했을
때 사수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어리바리 실수도 많은 신입직원을
최미영과장님이 잘 가르쳐주시고 애써주셨습니다. 작은 직장
예절부터 세세한 업무정보까지 가지고 있는 업무 노하우를 후배에게
아낌없이 베풀시고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낯설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때 제가 받은 정을 기꺼이
후배들에게 베풀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언제 어떤 장소에서 만나도 기꺼이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는 최미영 과장님!!
과장님은 영원한 저의 사수입니다.
퇴직할때까지 쭉~~욱
항상 고맙습니다. 하트 뽕뽕~~



마음이 통하는 동료로 만나는 일은 회사 생활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통하는 동료이자 의지할
수 있는 선배님을 얻은 저는 그런 면에서 행운아겠쥬 ^^
갓 졸업하고 입사를 했던 제가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건, 신입사원시절 낯선 환경에서 회사 다니는 재미를
소름소름 만들어 주신 과장님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
친언니처럼, 친구처럼 옆에서 살뜰하게 마음 써주시는 과장님을
보면서 '나중에 나도 저런 선배가 되어야지' 했었습니다.
선선한 가을이 지나기면 곧 겨울이 오고, 또 새로운 봄이 오겠쥬.
변함없는 자연의 계절들처럼 우리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지나요~ ^^



보내는 사람 | 충청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사업계획팀 오정아
받는 사람 |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강원지사 자원순환지원팀 최현진

고민 많은 직장인들의 살아있는 질문

답변자. 이순모

(주)케이베리 CEO

(전)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전)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가족보다 더 오래 함께 시간을 보내는 직장 동료들과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상처받는 말로 인해 좋은 관계를 맺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상처를 주는 직장 동료
(특히 상사) 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질문자
문제적 남자

A 좋은 관계란 무엇일까요? 얼굴을 대하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고, 같듯이 생기지 않으며, 상처를 주지도 받지 않는 관계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관계란 서로에게 (최소한일지언정) 마음을 두고 때로 상처 주고 받기도 하며 고마워하고 때론 미안해하며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만, 어떠신가요?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하고 싶다'는 바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바람은 아주 큰 격차를 가진 바람이므로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자는 꼭 마음을 두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후자는 마음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질문자가 생각하는 좋은 관계가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한다 해도 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관계는 마음 없이도 성립 가능한 관계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마음에 오래 남겨놓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이지요.

제가 보기에 당신은 아마도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들이 누군가의 말로 자꾸만 상처받는 것을 보고 있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싶으면서도 상처를 내는 그 사람과도 역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겠지요. 하지만 정말인가요? 만약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이 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좋아해서 좋은 관계 맺기를 원했다면 그에게 이야기를 했거나 이해하기로 하거나 결정을 내리고 행동했겠죠. 직장의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관계란 맺자고 작정해 맺어지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말을 휘두르는 사람은 권력을 즐기는 사람이거나 자신의 말이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설득하거나 변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은 접어두세요. 당신이 봐야 할 것은 당신에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기대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큰 상처를 주는 말이라고 해도, 그 말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은 멋진 사람이라는 응원도 그 말로 인한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믿어주고 지지하고, 곁에 있어주세요. 상처를 내는 자가 아닌, 상처 받은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고 그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질문자
치명적인 팜프파탈

어느덧 서른 중반을 향해가고 있는 공단의 싱글녀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요즘 들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소개팅을 해도 맘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네요. 사랑의 큐피트가 와주질 않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주세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A

먼저 대답 드리자면 '인연이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더해 '타이밍'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며 배우게 되는 많은 것들 중 하나는, 세상 일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역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만약 원하시는 것이 인연이 아닌 그저 만남이었다면, 마음의 문턱을 조금 낮추고 일단 여러 사람을 만나보시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인연'과 '사랑'은 앞서 이야기했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잔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와 만나거나 헤어집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아니면 안될 것처럼 속을 꿰었던 사람도, 행여 그 사랑이 지나가버린 후에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사랑이란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점 때문에 사귀고 싫은 점 때문에 헤어지고, 다시 좋은 점을 보고 또 그 좋은 점 사이에서 싫은 점을 발견하게 되어 망설이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일까요? 세상에 사람은 많으니 언젠가 '운명처럼' 나와 꼭 맞는 누군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야 완성되는 것이 사랑인 걸까요? '운명처럼'이라는 말은 그렇게 내 편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말인 걸까요? '마음에 든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조금 조급하고 그래서 서두르고는 있지만 '만남'을 원하는 것이 아닌 사랑과 인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란 아마도 그런 사람인 거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 역시 틀림없이 좋은 사람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조급한 것은 나이나 주변 환경, 누군가의 말 때문인 건가요? 당신의 본심도 '누군가를 만나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조급한 것이 확실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왜 그렇게 누군가를 고르고 있는 건가요? 정작 사랑이나 인연이란 내 마음이 고르고 싶어 골라지는 것이 아니고, 원하고 싶어 원해지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인연이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당신이 원하는 때와 장소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먼저 누군가를 곁에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친구라도 좋습니다.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건 만남이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소개팅에 나가는 것도 만남을 위한 노력에 해당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거기까지일 것입니다. 첫 눈에 빠지는 사랑을 빼고는 어떤 사랑이건 만남 속에서 불현듯 기적 같은 '반함'이나 '다시 보게 됨'이라는 순간을 통해 시작되게 됩니다. 스며들듯 빠지는 사랑도 있다는 말을 아마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연도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 존재합니다.

마음의 턱을 낮추고 먼저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도록 하세요. 그 상대가 지금 당장은 인연이 아니어도,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을 기다리는 중이야'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당신이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늘 보던 얼굴이거나 가끔 연락하던 얼굴이거나 우연히 그날 마주친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에게서 매력을 발견할 것이며 당신을 눈부시게 바라볼 것입니다.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 어플(App)로 관리하는 건강

설정해둔 시간에 울리는 알람을 듣고 일어나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지루한 출근길엔 음악을 듣거나 새로운 뉴스를 보거나 친구들의 SNS 소식을 읽는다. 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를 걸고 받는 것 이상의 역할로 현대인의 삶과 함께하는 휴대폰 속 어플들. 사진을 찍고 할인 매장들을 검색하고 가게부를 쓰는 것 이외에도 우리 몸을 위한 정보와 운동법 등 건강한 삶과 관련된 것들도 많다. 아침과 저녁 잠을 내어 함께 운동하기를 권하거나, 수면의 질을 관리해주거나 당신이 섭취하는 하루 칼로리와 물의 양을 계산해주는 어플들을 알아보자.



국민체조와 국민건강체조를 이용한 다이어트

운동량이 부족한 현대인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내 최대 다이어트 커뮤니티가 공동제작하고 국가대표 운동처방사가 효과를 검증한 운동 앱이다. 국민체조와 국민건강체조를 선택해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1세트(5분)~6세트(30분) 등 세트 수도 설정할 수 있어서 반복운동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국민체조 1세트를 운동할 경우 남자는 평균 28.9Kcal, 여자는 평균 26.2Kcal를 소모한다고 한다. 국민건강체조의 경우 1세트(6분)를 운동할 경우 남자는 평균 44.5Kcal, 여자는 평균 37.5Kcal를 소모한다. 심박체크 기능을 제공하며 영상을 따라 운동을 끝내고 나면 '참 잘했어요' 도장과 함께 기록 인증서를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자신이 실행한 체조의 횟수와 소모칼로리 정보까지 함께 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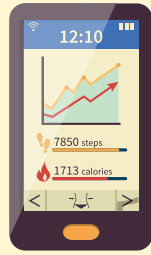
국민다이어트 (아이폰, 안드로이드폰/무료)

하루 여덟 잔의 물로 지키는 건강

일반적으로 성인이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수분의 양은 2리터이며 이를 물컵으로 계산하면 8잔 정도의 양이다. 하루 8잔의 물은 신진대사를 도와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며,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소화와 변비에 좋고 윤기나고 탱탱한 피부로 가꿔준다. 공복감을 해소해 군것질거리를 멀리하도록 하여 다이어트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수치도 낮춰준다고 한다. 이 어플은 매일 물 마시기 및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련된 기본 습관과 자신이 원하는 습관을 직접 추가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캘린더 기능으로 자신이 추가한 습관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할 수 있으며, 알람을 지정하고 효과음이나 진동을 조절해 자신이 설정한 목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깔끔하고 간편한 인터페이스로 사용이 편리하며 물 마시기에 꼭 필요한 기능만을 담고 있다.

매일 8잔 (안드로이드폰/무료)





수면 리듬 체크로 상쾌한 아침을 약속하는

이 앱을 실행해 침대 머리 근처에 놓고 자면 자면서 뒤척이는 등의 움직임이 진동을 통해 전달되고, 그 진동을 기록하여 자신의 수면패턴을 기록하고 그에 맞춰 깨워주는 앱이다. 요약하면 **수면 패턴을 기록하고 수면패턴에 맞춰 깨워주는 것이다.** 기상 알람의 경우 정해놓은 시간의 30분 전부터 깨기 가장 좋은 타이밍일 때 알람을 울려 깨우기 때문에 이 기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외에도 수면을 돕기 위해 White Noise나 파도소리 등을 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잠에 들어 깬 때까지의 수면패턴이 기록되기 때문에 기록되는 동안 자신이 잠을 잔 시간과 그 동안 숙면을 했는지 잠이 들다 깨는 불안정한 잠을 잤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Sleep note 기능에는 운동이나 커피, 술, 과식 등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이것들이 자신의 Sleep Quality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이 앱의 기능에 녹음기능을 더한 '당신이 잠든 사이'라는 어플은 자신이 코를 골거나 이를 가는지 얼마나 뒤척이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Sleep Cycle Alarm Clock (아이폰, 안드로이드폰/무료)

즐겁고 쉬운 다이어트를 위하여

먹은 음식과 양만 선택하면 알아서 섭취 칼로리를 계산해주는 기능을 가진 이 어플은 누구나 사용하기 쉽도록 간편하게 구성된 식단관리 & 다이어트 어플이다. 식단 기록과 운동 기록, 내 상태 기록 등의 기능이 있으며 매일 기록한 식단일기를 한 달 분량으로 모아 기준치보다 적게 먹었으면 노란색, 적절하면 초록색 등으로 표시한 '월별 분석'으로 보여준다. 규칙적인 식사를 위한 식사시간 알람 기능과 만보기 기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책장 기능 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하루 한 가지 미션을 주고 미션을 통과해 경험치가 쌓이면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게임형 콘텐츠로 질리지 않는 재미있는 다이어트를 유도한다.

다이어터 (아이폰, 안드로이드폰/무료)



자연을 살리는 공간, 마음을 나누는 디자인

남이섬

남이섬의 진정한 가치는 ‘치유’에 있다. 가을연가의 낭만이 고고히 흐르던 공간 위에 환경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더해지자 불모지인 땅, 버려진 물건, 잊힌 기억들은 모두 새 옷을 갈아입는다. 가공되지 않은 원시의 자연 속에서 온전히 하루를 지새울 수 있는 공간, 오늘도 남이섬을 찾는 발길에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깃든다.

자연을 위한 상상력 나누기 - 남이섬 환경학교

숲길을 걷다 보면 목재로 만들어진 소담스러운 학교가 눈에 띈다. 남이섬환경학교(이하 환경학교)는 환경교육전문 시민단체인 (사)환경교육센터가 운영하는 공간으로 자연과 점차 멀어지는 아이들에게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자연 체험을 제공하고자 개설됐다. 말 그대로 환경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친환경 학교’다.

환경학교는 상설체험 프로그램과 계절별 환경체험, 다양한 환경캠프를 통해 전 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를 진행한다. 대표 프로그램인 ‘남이섬 생태벨트탐방’은 남이섬의 자연 순환을 코스로 구성한 생태투어 프로그램으로 재활용을 이용해 만든 작품을 살펴보고 각 작품이 지닌 숨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게 한다. 또한, 남이섬에서 자란 자연물을 수집해 공예 하는 ‘자연물 체험’을 통해 자기만의 특별한 기념품을 소장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직접 고른 천연재료로 천연 비누와 천연 립밤, 고체방향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LOHAS 체험’은 재미와 실용성을 인정받아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렇듯 환경학교는 자연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연을 생각하는 긍정적인 상상력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아이들의 위한 자연 놀이터 - 운치원

남이섬에 마련된 운치원은 자연에 깃든 영감을 오감으로 체험하게 하는 특별한 공간이다. 운치원은 '아이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노는 정원'이란 뜻으로 유니세프에서 어린이 친화공원으로 인정받은 남이섬의 대표 어린이 놀이터다. 친환경 목재 건축물과 아기자기한 놀이기구는 아이들에게 도심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가까운 자연'을 선물한다. 토래와 함께 뛰어놀다 보면, 어느새 한 뼘 가까워진 자연을 느끼게 된다. 무성한 숲이 선사하는 거대한 그늘도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에 좋은 친구가 된다.

쓸모없는 물건들의 쓸모 - 도예원

도예원은 일상에서 흔히 버려지는 빈 병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예술의 장이다. 단순 재활용이 아닌, 업사이클링(Up cycling)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버려진 것들의 쓸모'를 깊게 체험하게 된다. 병은 고온의 가마 (약 720℃)에서 납작하게 눌러지고 목을 늘리는 등 다양한 형태 변화로 이색적인 소품으로 재탄생한다. 새롭게 태어난 빈병 공예품들은 남이섬 곳곳을 채우는 예술작품으로 또 다른 역할을 이어간다.





공정하고 바른 사회를 위하여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이란? 부패가 빈발하는 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제재하여 청탁을 방지함으로써 공직자들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한, 청탁을 받은 공직자들이 신고 등 법 절차를 따를 경우 청탁 거절로 간주하여 책임으로부터 보호한다.

Q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담당으로 근무해 온 공무원 A가 세종시에 있는 부처로 전출을 가게 되었다. 평소 건축허가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건축사 B가 그 동안 고마웠으며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로 주자 A가 그 가방을 받았다. 이들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될까?

A와 B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이를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A가 받은 가방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선물이고, 두 사람의 평소 관계를 볼 때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부정청탁 행위를 알아보자

당신이 누구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 행위의 유형은 1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의 부정청탁 예외사유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부정청탁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자.

1. 인가·허가 등의 업무처리에 개입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부탁하는 행위
2. 각종 행정처분이나 형벌부과를 감경·면제하기 위한 행위
3. 채용이나 승진, 전보 등 대한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4.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심의, 의결, 조정, 시험 위원 등)에 선정·탈락되도록 하는 개입 행위
5. 공공기관 주관의 수상·포상·우수자 선발 등에 특정 단체나 개인이 선정·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과 경매 등에 관한 비밀 누설을 유도하는 행위
7.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거나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기금 등에 대하여 특정 단체나 개인이 배정되거나 투자하도록 개입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등을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매각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10. 학교 입학·성적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요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약칭은 '청탁금지법'이지만 이 법안을 처음 제안한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부른다. 이것은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는 공직자를 처벌하는 법률이지만 사립 교직원과 언론인도 포함되었다. 핵심 내용은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 방지, 금품 수수 금지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대처방법과 신고자 보호와 보상

당신이 만약 부정청탁을 받았다면,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청탁을 다시 받게 된다면 소속기관장에서 서면으로 신고한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보았다면 그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조사기관은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원상회복되도록 조치하며 신분을 보호한 후 보호하고 책임을 감면하는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며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 증대를 가져온 경우에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한다.

* 청탁금지법의 대상은 누구일까?

2015년 3월 27일 공포되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는 이 법은 모든 공공기관(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과 함께 각 학교(사립학교 포함) 및 학교법인, 언론사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 국가 지방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장과 임직원, 학교장과 임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을 포함하며 이 공직자들의 배우자,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금품을 제공한 민간인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QA

A(공기업 직원), B(고등학교 교사), C(사기업 직원)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 사이로, 여름 휴가를 맞아 떠난 1인당 40만 원의 여행경비를 C가 모두 계산했다. A, B, C는 청탁금지법상 처벌대상일까?

세 사람 모두 처벌대상이 아니다. A와 B는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이나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위의 사례에서 A와 B는 C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여행경비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며 각각 제공받은 금액도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A, B, C 모두 처벌을 받지 않는다.

금품 수수 금지에 대해 알아보자

직무에 관련된 것이건 아니건, 어떤 명목을 가졌건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이나 매 회계 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된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에 대해서는 직무와 무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예외사유 8가지가 있다.

1.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하는 경우
2. 직무용 또는 경조사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대통령령 가액 범위 내 금품
3.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리와 원인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4.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이 제공하는 금품
5. 특별히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의 어려움으로 제공하는 금품
6.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7. 불특정 다수를 목적으로 하는 기념품, 홍보용품이나 경연·추첨을 통한 보상이나 상품
8. 외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전병성 이사장 취임식서 3가지 경영방향 제시

7월 25일 오전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임 이사장 취임식에서 전병성 이사장은 ▲혁신과 창의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 ▲화합과 소통을 중시하는 ‘일할 맛 나는 조직’으로의 혁신 ▲임직원의 청렴성과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등 3가지 부분에 경영파워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이사장은 우선 “명실상부한 최고의 환경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돼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포문을 열은 뒤 “대한민국 환경정책발전을 위해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하나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 이사장이 제시한 향후 3년간 주요 경영방향은 첫째, 혁신과 창의성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이다. 둘째, 일할 맛 나는 조직으로의 혁신을 강조했다. 셋째, 임직원 청렴성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꾀했다. 아울러 지역과 학력을 배제해 능력과 인품을 두루 갖춘 인재를 발탁, 기용하는 탕평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부서간 상호 융합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제시했다.

전 이사장은 Marksim Gor'kii의 ‘일이 즐거우면 인생은 낙원이고, 일이 괴로우면 인생은 지옥이다’는 말을 인용하며 “일할 맛 나는 조직으로 변화와 혁신을 위해 낮고 겸손한 자세, 책임지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김승희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 노조 조한관 위원장, 이춘수 위원장, 그리고 본사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전 이사장 취임을 축하했다.

제천에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건립

한국환경공단 연수원이 충북 제천에 건립된다. 7월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도청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제천시 간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은 이시중 충북지사와 이근규 제천시장,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본사를 둔 한국환경공단은 2,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국가 환경정책 이행과 신속한 전파를 위해 연수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이에 충북 제천시 금성면 생내리(왕건촬영지) 일원 10만 7,417㎡ 규모에 건립을 확정, 2017년 착공, 2019년 완공 예정이다. 국비 286억 원을 들여 하루 300~500여 명의 교육생 합숙이 가능한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연수원이 건립되면 연간 5만여 명의 인원이 제천을 방문해 25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21세기 자연환경시대를 주도해 나갈 한국환경공단 연수원이 조성되면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과 환경산업체 관련 직원들이 제천을 방문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수청년 100여 명 국제기구 파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지난해까지 167명을 국제기구에 파견했다.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은 급증하는 국제 환경협력 수요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우수 인재들이 국제기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작했다. 8주간 무료로 환경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성적이 우수한 경우 인턴 파견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에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환경통상 등 국내외 환경정책과 국제기구 근무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비롯해 각종 프로젝트와 실습 등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선발된 50명 중 40여 명에게는 환경관련 국제기구에서 약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체재비로 월 100만~120만 원(국외 소개 기구)을 지원해준다.

유재천 한국환경공단 해외사업처장은 "최근 한국이 신흥국 최초로 파리클럽에 가입했듯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국의 우수한 환경정책 및 기술 등을 해외에 전파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삼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처장은 또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은 국제사회 진출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기회의 창 역할을 해왔다"며 "국제기구 인턴 파견 경험을 토대로 현지 취업은 물론 환경분야 사업을 개발해 국제기구와 공단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패직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청렴도 으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 달성', '고객만족도 3년 연속 우수 달성'이라는 주요 성과를 이뤘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란 자율적인 청렴시책 추진을 유도하고 부패 유발 요인을 진단·개선하기 위한 지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1년 동안 각 기관들이 추진한 청렴사업들을 평가한 것으로 환경공단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환경공단은 ▲이사장, 상임감사 등 경영진의 청렴 소통 ▲부패 유발 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 개선 ▲청렴 실천리더 선정과 부서별 반부패 자율개선과제 발굴·실행 ▲일상·특정감사로 예산낭비 예방 ▲부패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한 번의 비위행위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한 인사제도 시스템) 시행 등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렴문화의 내부 정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펼쳐온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1등급(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013~2014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2년 연속 2등급(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공공기관의 반부패 활동을 선도해 왔다.

대표적으로 2011년부터 부서 단위로 '반부패 자율개선과제 발굴'을 시행한 데 이어 2014년부터 팀 단위로 자율개선과제 발굴을 실시해 2015년 기준 공단 162개 전체팀에서 상시 제도가 운영 중에 있다.

자원순환사회 첫걸음, 순환자원정보센터가 앞장선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8월 2일부터 폐기물과 중고물품을 거래하던 온라인 거래장터인 '순환자원거래소'가 폐자원의 유통뿐만 아니라 재활용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단장한다.

순환자원정보센터는 5월 20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적 지위를 갖게 된 온라인 거래는 물론, 순환자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맡으며, 기존에 각광을 받았던 폐기물재활용 사업자 위치기반 검색 기능(GIS), 순환자원 입찰거래 기능, 대상견적 기능, 폐자원 유통지원 서비스¹⁾ 등이 더욱 고도화된다. 올해는 유통지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²⁾ 기능을 추가해 서비스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전자입찰 활성화 외에 순환이용 기술, 가격정보 제공 등 수요자 맞춤형 재활용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며, 조직과 서비스체계가 확대될 예정이다.

순환자원정보센터는 지난 2012년 '순환자원거래소' 당시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6월 기준으로 회원가입 수가 13만 7,000건이며, 누적 물품거래 횟수는 134만 9,000건에 이른다. 금액으로는 약 130억 원의 거래가 이뤄져, 재활용시장의 대표적인 순환자원 거래·정보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폐자원 유통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까지 100여 개의 사업장에서 혜택을 받아 약 9,000톤의 폐기물이 재활용되거나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또한, 폐기물재활용 협력 창구를 확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미시 등 7개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재활용 활성화 지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을 위한 '자원순환바자회' 공동개최 등 관련 단체와 자원순환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1) 정보가 부족하여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재활용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하는 조건의 사업자를 연결해 줌

2) 폐자원 공급자-수요자간 최적의 온라인 맞춤형 거래장터 제공

환경공단 시범사업인 폐기물통계조사에 참여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이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를 위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조사 시범사업 참가자를 모집했다.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폐기물관리법 제 11조 및 시행규칙 제 7조에 따라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등 폐기물관련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생활폐기물(3,156개 지점) ▲환경기초시설(989개소) ▲사업장폐기물(약 25만개소) ▲기타폐기물(375개소) 등 4개 범주에 ▲생활폐기물 배출자조사 시범사업(24개소)을 신설, 총 5개 범주로 실시된다.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된 생활폐기물 배출자조사는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시되면서 가구별 배출자가 직접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을 측정하여 기입하는 방법으로 희망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지원 자격은 매월 1년간(총 12회)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조사에 참가할 수 있는 주택거주자다. 신청 방법과 안내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과 전화(032-590-41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시범사업 참가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종량제봉투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에 대해서 12개월간 매월 10~20일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를 조사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각 세대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종량제, 음식물, 재활용)를 종류(종이, 나무, 섬유 등)별로 구분하고 직접 무게를 측정하여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을 매월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소정의 조사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전병성 이사장은 “새롭게 도입된 생활폐기물 배출자 조사 시범사업은 미래사회에 대응 가능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한 것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폐기물 통계조사 기초자료의 가치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인천시 남구청, 「공사장소음 갈등해결업무협약 체결」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본부장 신동석)는 인천광역시 남구청(구청장 박우섭)과 지난 8월 11일 인천 남구청 소회의실에서 '공사장소음 갈등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체결하고 ▲소음발생현장(공사장) 진단 및 소음저감 컨설팅 ▲현장 관리자·작업자 교육 강화 ▲소음저감 자재Bank(에어방음벽, 이동식 방음시설등)의 운영·관리 등 실질적인 소음 저감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본부장 신동석)는 “이번 협약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의 좋은 본보기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모든 국민의 생활환경 수준을 향상시켜 정온한 환경복지 국가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길자 부청장은 “우리 구와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의 환경 전문 인력이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노력하여 인천광역시 남구를 정온한 생활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현장 소음저감 교육 및 소음저감 자재Bank 운영·관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사장소음 갈등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보다 효율적으로 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 인천시 악취발생원인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본부장 신동석)는 인천시(시장 조병돈)와 지난 8월 18일 인천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인천시 악취발생원인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악취 민원은 매년 평균 14%씩 증가추세이며 특히 ‘15년도 악취 민원 15,573건 중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4,323건으로 전체 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인천시 축산농가의 대규모화와 도시화에 따른 도시·농촌 경계 혼재로 인한 악취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시 전 지역에 대한 악취발생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수립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 악취관리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현황 및 환경여건, 환경질 변화와 전망제시 ▲악취배출원 현황 및 민원현황조사 ▲악취배출원 악취물질 측정·분석 및 원인물질조사 ▲기상측정 및 악취확산 모델링 ▲주변환경 영향분석 및 악취개선방안 검토 등 악취배출원 사업장 및 축산농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악취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동석 본부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시 전지역에 대해 악취측정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좋은 본보기로 공단에서도 그간 축적된 자료와 70여 명으로 구성된 악취전문가를 참여시켜 최선을 다해 실질적인 악취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참살이(Well Being)에 대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악취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은 단일사업장, 축산단지 및 산업단지 등 특정지역에 대한 대책이었지만, 이번처럼 시 전역에 대한 측정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수행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악취저감대책 수립시 악취 민원이 많은 타 지자체의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까이 가까이 사람가까이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는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한국환경공단의 계간 매거진입니다.
자연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며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해 주세요.
재미있게 읽은 기사에 대한 리뷰나, 새로운 코너에 대한 아이디어 등 다양한 의견들을 모두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진 퍼즐을 맞춰라!

2016년 11월 20일까지 도착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sabo@keco.or.kr로
보내 주시면 성심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가을호에 실린 사진입니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사진을 순서대로 맞춰 주세요.

- 1. 6-2-4-3-1-5
- 2. 4-3-2-1-2-6
- 3. 1-2-3-4-5-6
- 4. 5-4-3-2-1-6

지난호 엽서 당첨자!



이화연	서울시 도봉구
김화영	부산시 부산진구
한찬구	경기도 성남시
이정호	충북 청주시
송재하	대구시 수성구
김영자	대전시 서구
유재범	서울시 관악구
김옥희	대전시 중구
김남일	강원도 강릉시
안민지	인천시 부평구

여름호 정답 _ 4번(5-4-3-2-1-6)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신규 구독을 원할 경우, 신규 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이름

☐ 신규

☐ 변경

주 소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0. 6. 10~

서인천 우체국
승인 40083호

보내는 사람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홍보팀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담당자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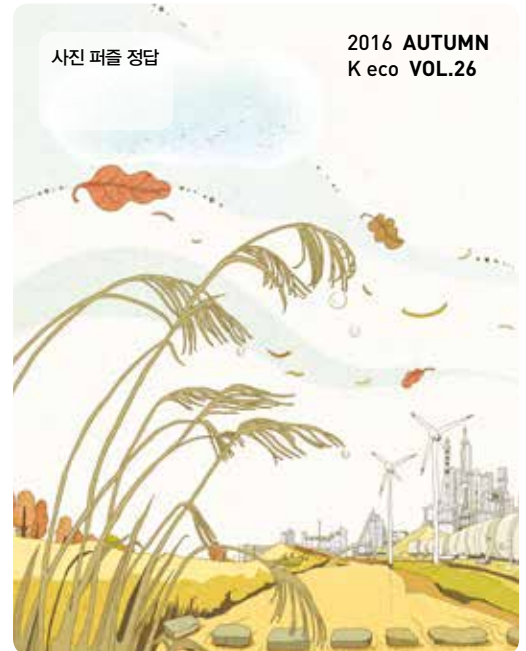
2 2 6 8 9

이번 호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사, 또는 아쉬웠던 점과 그 이유를 적어 주세요.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 혹은 편집실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 주세요.

사진 퍼즐 정답

2016 AUTUMN
K eco VOL.26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2016 AUTUMN
K eco VOL.26

여러분의 의견은 더욱 알찬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를
만드는 데 소중한
반영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사항

개인정보 수집목적

공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사보 배송
2. 독자엽서 당첨 상품 발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공단은 사보 배송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필수항목 : 이름, 주소
2. 선택항목 : 직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회원탈퇴 및 사보 배송 거부 시까지입니다.

정보 주체 개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필수정보를 동의하지 않으면 사보 배송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선택항목의 경우에는 해당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원활한 사보 배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사고 시의 책임부담, 위탁기간, 처리 종료 후의 개인정보 파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필수항목 : 이름, 주소
- 선택항목 : 직위

2. 정보의 이용목적 : 사보 배송 및 상품발송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배송거부 및 회원 탈퇴 시까지

4. 위탁업체 : (주)에스아이케이알

5. 거부권 및 불이익 :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필수정보의 경우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 사보 배송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선택항목의 경우에는 해당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명)

June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환경진단팀 **김선희** 대리
폐자원에너지센터 폐자원시설검사팀 **정종규** 계장 장남

July

자원순환지원처 압수물지원화팀 **김석주** 대리
배출권관리처 상채운영팀 **김령화** 대리

August

하수도지원처 하수도지원팀 **정규동** 대리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수도통합서비스센터 정선수도사업소 **송선현** 사원 차녀

September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수질관리팀 **박은준** 사원 ♥ 상수도지원처 상수정책지원팀 **이슬** 대리
환경인증검사처 자동차인증검사팀 **오미연** 사원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사업계획팀 **김시습** 사원 ♥ 하수도지원처 하수정책지원팀 **문가람** 대리



CONGRATULATION



June

충청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한건** 대리
충청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수질관리팀 **최봉선** 대리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시설처 **김민혁** 감독의
충청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수질관리팀 **윤경원** 사원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최영미** 계장

July

호남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대기관리팀 **김상수** 대리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처 대기관리팀 **김수경** 사원
경영지원처 재무회계팀 **박창호** 대리
인재경영처 정보팀 **황재호** 대리 ♥ 수생태지원처 수생태복원팀 **강희경** 대리
석면관리처 석면피해구제팀 **김영하** 대리

August

하수도지원처 하수정책지원팀 **김선진** 대리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수질관리팀 **선진욱** 대리
호남권지역본부 환경시설처 환경진단팀 **정재욱** 대리

September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사업계획팀 **함지인** 대리



June

상하수도시설처 상하수도계획팀 **조영환** 대리

July

자원순환지원처 자원순환정책통계팀 **정강준** 대리

August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관리처 대기총량2팀 **모태영** 대리
대기환경처 대기측정망팀 **강동진** 대리
자원순환지원처 자원순환정책통계팀 **구재은** 대리
악취관리센터 악취기술지원팀 **김상우** 과장
호남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사업계획팀 **공준용** 대리
환경에너지처 에너지설계팀 **안성원** 과장

September

대구경북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수질관리팀 **황재훈** 사원

대한민국 모두가 쾌적한 환경을 누리는 환경복지사회

한국환경공단이 환경의 초록불을 켜겠습니다

자원을 다시
사용할 순 없나?

물이 깨끗하면
건강해지겠지?

많은 공기를 위해
무엇부터 하지?

한국환경공단은 종합환경서비스기관으로서
기후·대기, 물·토양, 자원순환, 환경보건까지
국민을 위한 최상의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www.keco.or.kr



한국환경공단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건강한 흙이면 좋겠지?